

복식에 표현된 투명성의 이미지

박 명 희 · 정 연 자*

건국대학교 의상학과 교수 · 호원대학교 의류학과 조교수*

Image of Transparency expressed in Dress

Myung-Hee Park · Yeon-Ja Jung*

Dept. of Apparel Design, Kon-Kuk University

Dept. of Clothing and Textile, Ho-Won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compares architecture with dress, investigates the image of transparency expressed in modern dress, and reveals its modern meaning. That is the purpose for this study.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purity was expressed with simple, white color which has not any exaggeration or decoration, and transparent veils of wedding dress express clean and pure image which represents the original meaning of wedding dress.

Second, eroticism conveys being erotic by exposing human body through transmission of light over transparent materials. Eroticism expressed by wearing thin and transparent dress with body-conscious line almost like being nude or emphasizing the sexually curious area in human body. The biggest difference in this study is that eroticism is delivered in dress, but not in architecture.

Third, playfulness shows synchronism which recognizes human body with transmission of light over linear, transparent materials or recognizes inside dress. Playfulness expressed with location switch between inside and outside, exaggeration, distortion, and emphasis.

Fourth, openness makes dress atmosphere soft by putting transparent materials over opaque materials, expressed separation from restriction by wearing transparent dress over a naked human body, and expressed open and free image by expressing human emancipation and freedom.

Transparent dress expressed modern human beings' sensitive desire for living with light and joyful mood departing from heavy thought, and also open and free image which pursues for freedom of human body departing from the restriction of human body.

Key Word : 투명성(transparency), 순수성(purity), 솔직성(frakness), 에로티시즘(eroticism), 유희성(joyfulness), 개방성(openness)

I. 서론

복식에 표현된 투명성에 관한 연구(I)에서 재료 표현을 중심으로 투명성의 관념적 효과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투명성의 조형성에 따른 이미지의 범주화를 나누어 좀더 구체적으로 복식에 표현된 투명성의 이미지를 고찰하였다.

오늘날 '투명성'(Transparency)은 생활상의 소품에서 건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러한 투명성은 '없는 것처럼 보여지기를'(to be looked through)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기를'(to be looked at) 원하는 현대인의 심리¹⁾가 표현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복식은 예술 일반이 그렇듯이 인간의 내적 이미지를 표현하는 한 방법이다.²⁾ 그러므로 복식의 표현적 기능은 외적 형식을 빌려 내적인 감정과 상상을 표현하는 예술의 심미적 표현기능과 일맥 상통한다.³⁾ 이러한 현상을 Roach와 Musa⁴⁾는 '문화적 일관성'(Cultural Consistency)이라 하였다. P. Tortota도 "어떠한 역사적 시기에 있어서도 예술 형식들 사이에는 일정한 동질성이 발견된다"⁵⁾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서로 다른 문화 양식인 건축과 복식에 표현된 투명한 디자인을 비교 연구하여 복식에 표현된 투명성의 이미지를 밝혀보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범위는 건축에 최초로 등장한 투명 디자인은 1920년대 Miés van de Rohe의 유리 마천루 계획안(1920-21)이다. 따라서 건축에 나타난 투명성의 이미지는 그 시기를 1920년대부터 투명 재질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현대까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복식에 표현된 투명성의 이미지는 투명한 의복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1990년대의 양상을 다루었다.

연구방법으로는 양식상의 차이와 유사성을 추출해내는 H. Wölfflin⁶⁾과 여러 학자들이 즐겨 사용한 비교 미학적 방법⁷⁾을 사용하였다. 내용적으로는 문헌 연구와 실증적 자료 분석을 병행하였다. 실증적 분석은 1990년에서 1999년 사이의 『Collections』과 『Vogue』지에 발표된 작품들 가운데 복식 전공자 2인이 투명한 의복이라고 공통적으로 판단한 작품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II. 투명성의 조형성과 이미지

1. 투명성의 조형성

1) 투명성의 표현 기법

첫째, 시·공간적 개념으로, 큐비즘이 발전시킨 공간 체계의 표현 방법이다. 이는 투명성을 새로운 공간 원리로 이끄는 것으로, 하나의 시점에 의해서 묶여진 정적인 시야는 절대적이 아니며, 공간의 자극은 점차로 시차를 가지고 전개되며 그 인상은 시간을 두고 반응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큐비스트들은 그들의 도형 방법으로 동시 표현이라는 방법을 채택하였다.⁸⁾

조형 예술에서도 관찰자의 신체적 시간, 작품 자체 내에 내재된 고유한 시간, 예술가의 창조 행위에 동반하는 심리적 시간 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공간에는 여러 가지 지각을 동반한 표현이 나타나며, 시간과 매우 관계가 깊다고 할 수 있다.⁹⁾

둘째, 실의 투명성과 허의 투명성으로, 여러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C. Rowe는 투명성을 물질 그 자체가 가지는 특성과 형태 구조의 고유성, 두 가지 측면에서 파악하고 있고¹⁰⁾ G. Kepes¹¹⁾는 시각적 파괴가 없는 상호 관입, 서로 다른 공간적 위치의 동시

적 지각, 전후로 흔들리는 공간 관계라는 특성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L. Moholy-Nagy는 형태의 중첩은 “공간과 시간의 고정화를 극복한 것이다.”¹²⁾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물리적인 실의 투명성과 지각적인 허의 투명성으로 분류하고 있다. 중첩은 지속적인 시각 개념으로부터 벗어난 변화를 창출해내는 방편 중의 하나로 인식 대상들이 동시에 이중구조를 지닌 대상으로 나타나고, 서로의 의미가 혼합되거나 중첩되어 이미지상으로는 같은 의미를 지닌다.¹³⁾

이처럼 투명성은 철망이나 유리의 유리벽(curtain wall)에서처럼 물질이 지닌 고유성일 수 있다. 혹은 Kepes나 다소 그 정도가 덜하지만 Moholy-Nagy가 주장하고 있듯이 어떠한 구조가 지니는 고유성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물리적인 ‘실(實)의 투명성’과 지각적인 혹은 ‘허(虛)의 투명성’을 서로 구분할 수 있다.

셋째, 동시성으로, 이는 조형예술의 공간에서 외부와 내부를 지각할 수 있고 또 다음 공간이 동시에 지각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시간의 경과를 통해 차차 지각할 수 있는 것을 투명성에 의해 동시에 지각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투명성은 외관속의 공간까지 확장되어 보이게 함으로써 시각적 일체감을 나타내고자 함이다.¹⁴⁾

2) 투명성의 시각 요소

첫째, 형태의 표현으로 형태의 창조나 디자인은 구성이나 구조를 이루는 유기적 곡선과 원리의 활용뿐 아니라 기본적 시각 요소인 점, 선, 면의 활용과도 관계가 있다. 또한 투명성은 구성에서 형태들을 서로 중첩시킬 때 깊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은 투명성이 관찰자로 하여금 모든 형태들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요소이기 때문이다.¹⁵⁾

둘째, 재료에 의한 표현은 각각 은유적 의미도 가지는데 투명한 상태는 완전히 드러나 보이는 특성으로 솔직함과 순수성, 유희성, 개방성 등을 표현한다. 복식에서는 이 외에도 인체의 노출현상으로 인해 성

적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에로티시즘을 표현한다.

반투명한 상태는 건축에서 반투명 유리나 스텐드 글래스의 이용으로, 복식에서는 문양이나 색채 등에 의한 반투명함으로 모호함을 전달해 준다. 투명의 명확함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투명성의 이중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불투명은 단절감을 나타내지만 광택이 부여되면 재질이 매끈해지고 주변의 것을 반사하는 거울 효과를 나타낸다. 이는 투명한 표피적 효과를 지니며 유희적인 효과를 전달한다. 의복은 투명한 소재의 중첩에 의해 시각적으로는 불투명하지만 지각적인 투명성을 전달한다.

투명과 불투명의 혼합은 다른 상태보다 대비, 소멸, 여백의 이미지 표현을 통해 은유적 의미가 강하게 부각된다. 불투명에 투명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시각적 대비를 통해 강조의 효과를 나타내고, 재미있는 형태를 나타내 유희적인 이미지를 표현한다. 복식에서는 투명과 불투명으로 인해 감춤과 드러냄을 동시에 드러내면서 에로티시즘을 전달하고 있다.

셋째, 빛에 의한 표현은 투명한 재료의 가능성을 확실히 해주며 공간에 어떤 의식을 부여하여 투명성의 은유적 효과를 기대하게 한다. 빛은 3차원의 공간에 시간을 더하여 4차원으로 만들 수 있다.

빛의 투과와 반사를 동시에 지니는 이중적 특성에 의해 건축물에 사용되어진 투명한 물질은 주변 환경을 투과하거나 반사한다. 복식은 빛의 반사와 흡수 정도에 따라 시각적인 효과가 달라진다. 빛은 의복을 투과하여 인체를 비쳐 보이게 하고 인체와 외부 환경과의 연결성을 가져다준다. 빛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형태와 공간은 빛에 의해 활성화되고 그 본래의 모습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2. 투명성의 이미지

투명한 것에 상징적·은유적 효과를 부여함으로

써 투명성의 이미지를 확보한다.

T. Munro¹⁶⁾는 상징은 명백히 본래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부차적인 뜻이 있는 것을 가리키며, 은유 및 유추, 추상적 상상 등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관찰자는 작가의 의도성 작품을 통하여 새로운 관념을 가질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상징, 은유를 통해 관념을 이미지화 하는 것은 내적 관계를 표현한 것이다.¹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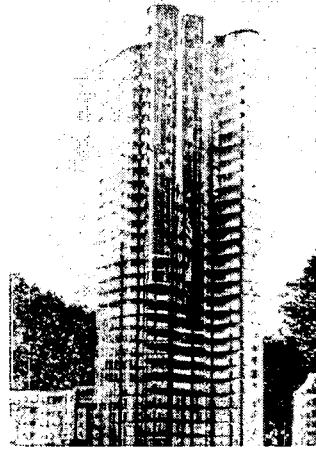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건축에서 표현된 투명성 이미지의 범주화를 순수성, 솔직성, 유희성, 개방성으로 나누어 고찰하고 복식에서는 순수성, 에로티시즘, 유희성, 개방성 등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투명성의 조형성에 따른 이미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1>

<표 1> 투명성의 이미지

조형성					이미지, 은유, 상징	
형태	동시성	물성(재료)	빛	동시성	건축	복식
점·선·면·중첩	시·실·과·공·허·간·의·적·투·명·개·명·성·개·념	투명	투과	유	순수성, 솔직성, 유희성, 개방성	순수성, 에로티시즘, 유희성, 개방성
		반투명	투과	유	모호함	모호함
		불투명	반사	유	유희성	단절감
		투명 & 불투명	투과, 반사	유	유희성, 개방성	유희성, 개방성

한 면 이면에 존재하는 골조 구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는 서로 다른 차원의 공간을 동시에 인식하



(그림 1) Miés van de Rohe. Glass Skyscraper(1919-21)
H. H. Amason, History of Modern Art, p.317.

Ⅲ. 건축에 표현된 투명성의 이미지

1. 순수성

건축에서 투명성을 표현하는 유리는 빛에 대한 투명도를 지니고 있는 순수한 물질이다. 디자이너들은 이러한 유리의 특성을 이용하여 건물의 순수함을 표현한다.¹⁸⁾

Miés van de Rohe의 유리 마천루(Glass Skyscraper, 1919-21)계획안<그림 1>은 유리 자체보다 그 투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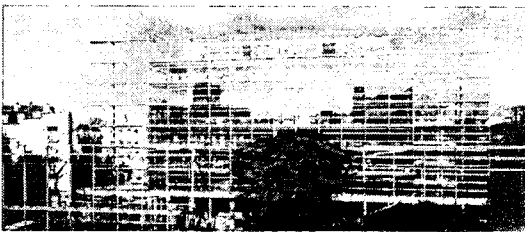
는 동시성의 개념, 시·공간 개념이 나타나고 있다.

Miés의 계획안은 기능적 순수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고전적 전통인 장식을 떼어버려 건축을 순수하게 하려고 시도하였다. 또한 육중한 건물이지만 유리의 이용으로 가벼움을 전달해 주며¹⁹⁾ 모든 감성이 순화되어 투명한 상태로 환원되는 순수함이 전달되고 있다. 이러한 순수성은 전체적으로 단순한 형태이며 투명 유리에 빛이 투과하여 내·외 공간이 상호 관입하는 동시적인 시각을 나타내었다. 유리가 지닌 깨끗하고 순수한 특성을 이용하여 건

물의 순수한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2. 솔직성

J. Nouvel의 카르티에 재단(Cartier Foundation Building, 1994)〈그림 2〉은 직사각형으로 단순한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유리면의 중첩으로 배후에 있는 것도 보여주는 시각적인 동시성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투명 유리에 의한 실의 투명성이 표현되고 있다.



(그림 2) J. Nouvel, Cartier Foundation Building(1994)
Plus, 1994, 10, p.1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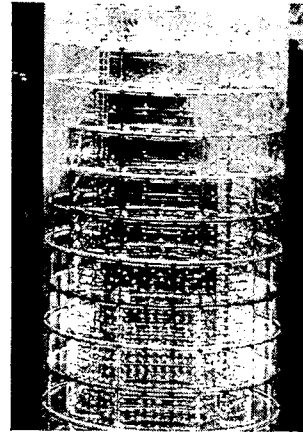
이 건물은 경량구조와 함께 가벼움을 강조하였고, 투명한 속성과 색채효과로 인한 경쾌한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다. 회사의 솔직함과 신뢰도를 이 건물 전체 유리 파사드를 통해 표현하였다.

건물 내부에서 하는 일에 대한 신뢰성을 표현하고 있고 이는 고객에 대한 기업의 신뢰성과 솔직성을 전달해줄 뿐만 아니라 열린 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강조하고자 하였다.

3. 유희성

Toyo Ito의 바람의 탑(Tower of Winds, 1986)〈그림 3〉은 일본 요코하마 역 앞에 위치한 환기탑이다. 이 환기탑은 거울로 감싸고 그 외부를 구멍 뚫린 알루미늄으로 가린 다음 그 안에 수천 개의 램프를 설치한 단순한 디자인이다. 단순한 원형으로 거울 유리에 빛이 반사되어 구멍 뚫린 알루미늄이 비춰질 때와 밤에 수천 개의 램프가 켜졌을 때의 모습

이 다르게 표현된다. 바람의 탑은 낮과 빛이 사라진 저녁, 그리고 밤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연출하면서 유희성을 표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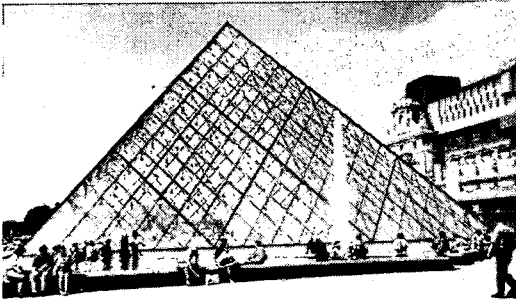


(그림 3) Toyo Ito, Tower of Winds(1986)
건축과 환경, 1995, 02, p.42.

4. 개방성

건축에서 개방적인 공간 개념은 큐비즘 회화 속에 나타난 동시성의 개념에서 비롯된 것이다. 투명한 유리는 경계면의 설정이라는 벽의 의미로서 시각적 투과를 허용한다. 유리의 이중적 속성에 의해 내·외부 공간은 분리되어 있으면서도 시각적 확장을 표현함으로써 개방되고 상호 관입하는 공간 개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I. M. Pei의 루브루(Louvre) 박물관의 피라미드〈그림 4〉는 피라미드의 상징성과 기술에 의한 현대적 표상성으로서 유리의 투명성에 의한 역사적 건물과 현대적 건물의 시각적 콘텍스트의 연결을 나타내고 있다. 유리에 의한 연출 공간의 특성은 공간의 개방주의에 있으며 그것은 열린 공간, 가슴 트이는 시원함을 느끼게 하는 공간이다.²⁰⁾ 루브루 박물관은 빛의 투과로 피라미드 내부에서 밖을 볼 수 있는 동시성이 존재한다. 자연과의 근접된 실내 공간을 위해 막힌 벽을 트고 넓은 유리벽을 두어 우주의 무한공간을 대할 수 있게 한다.



(그림 4) I. M. Pei, Louvre 박물관의 피라미드(1984-89)
C. Jenks, 네오모던 건축, p.146.

개방성은 투명한 유리를 이용하여 폐쇄적인 장소가 아닌 거리 혹은 개방된 공간으로 유도하며, 빛의 투과로 외부를 내부로 끌어들이는 공간의 확장, 실내 공간의 벽을 넘어 외부를 볼 수 있는 시각적인 동시성을 표현하였다. 대중적이며 개방적인 이미지

<표 2> 건축에 표현된 투명성의 이미지

이미지 조형성	순수성	솔직성	유희성	개방성
형태	직선, 수평 방향 단순한 형, 정방형	직선, 수평 방향 단순한 형, 정방형	직선, 곡선, 사선, 사방향, 모호한 형, 원형	직선, 사선, 사방향 단순한 형, 각형
색채	재질의 색	좌동	좌동	좌동
재질	유리	유리	반사유리, 유리+철골 스텐드 글래스	유리
빛	투과	투과	투과, 반사	투과
기법	투명, 반투명, 부분투명, 투명+불투명, 불투명			
	동시성			
	내·외 공간의 상호관입	내·외공간의 위치전환 주변 환경 반영		공간의 확장
디자이너	Miés van der Rohe B. Tscjmi	J. Nauvel M. Kagan	C. Pelli R. Rogers & R. Piano	P. Johnson I. M. Pei

를 전달하고 있다.

건축에 표현된 투명성의 이미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2>

IV. 복식에 표현된 투명성의 이미지

1. 복식에 표현된 투명성의 역사적 고찰

1) 고대

이집트 복식은 초기에는 몸에 꼭 끼며 유방에서 끈이 달린 쉬스 스커트(sheath skirt)를 입다가 후기에는 반투명한 고운 직사각형의 린넨 천으로 만든 드레이퍼리한 칼라시리스(kalasisiris)를 주로 입었다.²¹⁾

<그림 5>는 로인 클로스(loin cloth), 쉬스 스커

트, 칼라시리스를 입고 하프(harp), 류트(lute), 오보에(oboes)와 라이어르(lyre)를 연주하는 소녀들의 모습²²⁾이다. 거의 nude 같은 유희적인 투명한 드레스를 입고 있다.



(그림 5) Ioin cloth, sheath skirt, kalasiris
Michael & Ariane Batterberry,
Fashion the Mirror of History, p.27.

그리스·로마의 복식은 남녀 모두 자연적인 인체를 살리기 위해 얇은 천으로 몸의 곡선이 그대로 드러나는 드레이퍼리 의복형을 입었고, 바느질이 들어가지 않은 간단한 의상으로 보일 듯 말 듯한 육체를 통해 관능적인 모습을 나타냈다.²³⁾

로마의 복식은 그리스의 이오닉 키톤을 그대로 착용하고 히마티온(himation)을 그 위에 걸치는 형식으로 나타났는데 명칭만 스톨라(stola), 팔라(palla)로 바뀌었다.

고대 이집트, 그리스, 로마의 복식은 인체를 자연스럽게 드러내거나 얇은 천으로 비치는 두 가지 방법으로 표현되었다. 고대에는 인체의 노출이 자연스러웠음을 알 수 있다. 주로 출산과 관련된 부분의 노출이 있었고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자연스런 인체를 살리기 위해 인체의 곡선이 그대로 드러나는 의복을 착용하였다. 복식 안에서 인체의 곡선이 드러나면서 지각적인 투명성이 표현되고 있다.

2) 중세

중세의 복식은 12세기 초까지는 인체의 선을 감추는 드레스를 착용하였고 12세기 중엽부터는 인체의 선이 그대로 드러나는 꼭 맞는 드레스를 입었다.

이 시대는 곡선미를 드러내는 몸에 꼭 맞는 의상이 입혀졌는데 특기할 만한 것은 가슴이 깊게 파인 데콜테(decolletage)된 의상으로 오랫동안 감춰졌던 여성의 인체가 드러나게 되었다.

중세에는 인체 노출, 투명한 의복에 대한 욕구가 있었지만 중세의 엄격한 규율 때문에 인체를 드러내는 의복을 착용하지 못했다. 그러나 종교적인 속박에서 벗어난 르네상스 시대에는 인간 본연의 모습을 추구하는 관능으로 가득 찼다. 심리 전반에는 관능적인 욕구가 강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관능을 표출했으나 실제적으로 의복에 표현하지는 못했다. 이러한 잠재된 욕구는 다음 세대에 표현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그림 6>은 고딕 시대 여자의 모자 에닝(henin)이다.



(그림 6) Henin
François Boucher, 2000 Years of Fashion, p.208.

3) 근대

근대는 중세 종교의 속박에서 벗어나 인간 본연의 모습에 의미를 두는 시기였다. 여성의 미를 과시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웠으며 여성의 나체미를 과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행하였고, 또 여러 형식을 취했다.²⁴⁾

실제적으로 의복에서는 여성의 관능적인 미를 표현하는 의복은 착용하지 못했지만 여성들의 심리 전반에는 그러한 잠재욕구가 있었다고 고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다음 시대에는 투명한 의복을 표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투명한 소재의 의복이 유행한 시기는 엠파이어 스타일 시대(1789-1815) 이다. 이 때는 다리, 가슴, 팔 등을 노출함으로써 투명성의 표현이 단계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화려함과 사치가 절정에 달하고 극히 얇은 의복을 입는 것이 유행함에 따라 파리 부인들은 코르셋은 물론 속옷도 입지 않은 채 맨살 위에 슈미즈를 입었다. 희고 얇은 슈미즈에 어깨, 목, 발을 드러내고 모자대신 푸른 리본을 매었다.²⁵⁾ 몸에 더욱 밀착된 효과를 얻기 위해 얇은 머슬린을 적셔 입어 맨살이 완전히 비쳐 보이게 하였으며, 겨울철에도 얇은 옷감의 슈미즈를 입어 폐렴 환자와 사망자가 생겼다. 이를 머슬린 병(muslin disease)이라고까지 하였다.²⁶⁾ 이러한 반나체에 가까운 에로틱한 표현은 현대적 의미와는 다른 이성으로서의 남성에게 보이기 위한 유혹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7>은 가슴이 완전히 드러나는 투명한 슈미즈를 입은 여인의 초상화이다.



(그림 7) chemise(1800)

R. Martin, & H. Koda, *Infra-Apparel*, p.15.

이 시대의 투명한 복식에 의한 인체 노출은 현대에 와서 자연스럽게 인체를 노출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4) 현대

투명한 의복이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1920년대

Vionnet에 의해서이며 투명한 실크 이브닝 드레스(1929-30)²⁷⁾가 대두된 계기의 대표적 의복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속옷을 입어 직접적인 인체의 노출은 표현되지 않았다.

1920년대의 투명한 의복은 팔, 다리 등 부분적인 노출을 표현했지만 1960년대 들어서는 인체를 대담하게 노출하는 투명한 의복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렇듯 대담한 노출의 투명한 의복은 당시 폴리에스테르가 개발되고 이 소재는 과거 귀족의 소재였던 실크와 똑같은 투명 제직의 대량생산으로 대중화되었다. 또한 투명한 소재는 20세기 초반부터 이브닝 드레스에 많이 사용되었다.

1968년, Y. S. Laurent²⁸⁾은 시-스루 블라우스를, B. Johnson은 플라스틱 소재의 드레스, Rudi Gernreich은 라이크라와 울로 만든 드레스<그림 8>을 발표하였다. 와일드 컬렉션(wild collection)의 해²⁹⁾라고 할 정도로 노출이 심했다.



(그림 8) Ludi Gernreich(1969)
The Ludi Gernreich Book, p.137.

투명한 복식은 복고풍의 영향과 여성 육체에 대한 재발견으로서의 신 구성주의, 바디컨셔스 라인(body conscious line)이 도래하면서부터 특징 지워진다. 바디컨셔스 라인은 '신체를 의식하는 것' 또는 '자기 몸에 주목하여 관심을 가지자'라는 뜻을 가지고 자연에 대한 재인식, 자기 신체에 대한 재발견이

라 할 수 있다. 60년대에 많이 대두되었던 투명한 의복은 30년이 흐른 지금 또다시 유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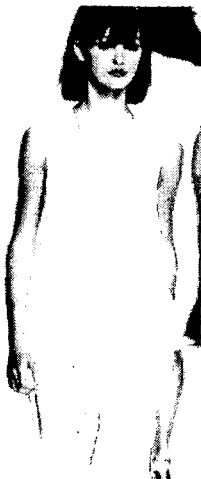
2. 1990년대 복식에 표현된 투명성의 이미지

1) 순수성

현대 예술의 특징은 '순수성의 지향'에 있다고 하겠다. 현대 건축에서도 순수한 구축적인 것을 바라보았으며 조각에서도 회화적인 색채와 구축적인 원근법을 추방하고 구체적 대상의 재현을 부정함으로써 순수한 볼륨(양감)의 구성을 추구하였다.³⁰⁾ 현대미술에서도 이러한 순수성을 추구한 결과 추상미술을 탄생시켰다.³¹⁾

순수성을 추구하는 현대 복식은 과장을 없애고 직물 평면에서의 장식성을 배제시켜 창조적으로 나타난 자연의 선을 사용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자연적인 선의 사용은 인공적인 실루엣은 버리고 순수한 입체 조형을 만들게 되었다. 투명한 복식 역시 장식성을 가미하지 않은 자연스런 인체의 선을 표현하고자 하며 이는 순수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림 9>는 Calvin Klein 작품으로 과장이나 장식이 없는 단순한 스타일의 흰색 원피스에 인체를 자연스럽게 표현함으로써 깨끗하고 순수한 이미지를



(그림 9) Calvin Klein(1995)
Collections, 1995 S/S, TK/NY/Seoul, p.120.

표현하고 있다. 특히 청결함과 순수한 의미를 지닌 웨딩드레스의 베일은 투명한 재료를 사용하여 순수한 이미지를 전달하는 대표적인 의복이라 하겠다.

2) 에로티시즘

보다 아름답게 옷을 입으려는 충동은 바로 불안전한 자기자신을 보다 완전하게 해보려는 충동의 소산이다. 이는 곧 인간 활동의 모든 원동력인 에로스의 사회화 과정, 또는 사회적으로 자기를 나타내려는 발현 과정의 일부라 볼 수 있다. 에로틱한 표현을 하고자 하는 의복에서 성적 충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성적 연상을 유발시키는 표현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잠재적으로든, 암시적으로든 섹스 심볼화 되어 있는 인체 부위를 직접적인 노출이 아닌 투시를 통해 표현하는 방법은 간접적이고도 상징적이며 은유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³²⁾

<그림 10>은 Jean Paul Gaultier 작품으로 투명한 레이스에 빛의 투과로 인체가 노출되며 동시성을 나타내고 있다. 얇고 투명한 레이스 의복은 가벼움을 전달하고 있으며 음부 부분에 코사지를 장식함으로써 보는 사람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성적 충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성적 연상을 유발시키는 표현은 에로티시즘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은



(그림 10) Jean Paul Gaultier(1995)
Collections, 1995 S/S, P/L, p.26.

성행위의 이미지를 환기시키거나 암시, 혹은 표현함으로써 에로틱함을 느끼게 되는데 의복의 에로티시즘은 인위적인 것을 배제하고 자연스런 미를 표현한 것이다.

무엇이든 살짝 가려진 것들은 아름답다. 베일을 쓴 여자, 속살이 흰히 비치는 반투명의 나이트 가운을 입고 있는 여자, 생머리를 늘어뜨려 얼굴을 반쯤 가리고 있는 여자 그래서 누드의 경우 완전히 발가벗은 것보다는 일부분을 살짝 가린 쪽이 더 에로틱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것이다.

3) 유희성

유희란 어떤 외적 결과를 실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활동 그 자체의 흥미 때문에 일어나는 심신의 자유로운 발동이며, 긴장을 필요로 하는 일에서 벗어나 원시적인 마음 편한 활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³³⁾ 철학과 미학 일반에서 협의의 유희성이란 해방과 자유의 감정, 유희 충동의 발산을 위해 반고전주의적 경향에 힘입어 나타나며 일상 규칙의 위반, 이질적 요소의 도입, 무지, 외설, 하락, 강조, 변형, 모순, 부조화를 통해 보는 이에게 놀라움, 쾌감, 우월감을 느끼게 해서 웃음을 자아내는 특성이다.³⁴⁾ 이성에 묶여왔고 의식 세계에만 한정되어 왔던 정신을 해방시키기 위해 인간 정신의 심층부에 매몰되어 있는 무의식을 표출함으로써 인간의 해방과 자유를 획득하는 초현실주의에서도 위치 전환법, 오브제의 도입 등을 사용해서 복식의 유희성을 표현하였다.

<그림 11>은 Issey Miyake 작품으로 문양에 의한 반투명의 효과, 빛의 투과로 인체를 나타내는 동시성을 표현하고 있다. 일반적인 의복과 다른, 일상 규칙의 위반과 형태의 과장은 보는 이에게 놀라움과 쾌감을 전달해주며 웃음을 자아내게 한다. 투명 소재에 빛의 투과로 직접 인체를 볼 수 있는 동시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투명한 소재의 형태 왜곡은 인체의 왜곡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유희성을 표현하고



ISSEY MIYAKE

(그림 11) Issey Miyake(1994)
Issey Miyake, 1994, p.23.

있다. 일반적으로 유희는 이성과 감성이 해방되어 자유로운 조화의 상태에 이르는 것으로 해방과 자유의 감정이며 자유활동으로 볼 수 있겠다.

4) 개방성

개방성이란 외적 강제(外的 強制) 또는 구속을 받지 않는 자립적 상태, 소극적으로는 외적 구속에서 독립된 것, 적극적으로는 자기의 본성에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자유로운 행동에 있어서 사람은 자유의 의식을 갖는다. 자유의 반대는 부자유 즉 속박으로서 자기 이외의 법칙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을 가리킨다.³⁵⁾ 이러한 개방성은 동시에 다양성의 수용을 의미한다.

오늘날 자유롭고자 하는 마음은, 과거 사람들을 강력하게 구속하였던 전형(典型)을 만들려는 힘만큼이나 강렬하여, 이제 이 의지는 무한히 뻗어 가는 사람들의 사고 능력과 더불어 이제까지 우리들을 유지시켜 주었으며 한편으로는 사람들을 구속하였던 과거의 전형을 무너뜨리고 있다.³⁶⁾ 이는 인간의 본능적인 행동의 최후의 단계이다. <그림 12>는 Dolce & Gabbana 작품으로 불투명한 브라 탑 위에 전체적으로 투명한 의복을 입고 넓은 벨트를 한 모



(그림 12) Dolce & Gabbana(1999/09)
Collections, 1999/00 F/W, NY/Milan, p.326.

습은 여성스러움과 남성스러움을 함께 전달한다. 그러나 투명한 소재의 사용으로 부드러움을 전달해 준다. 또한 어떤 정형화된 의복에서 벗어난 개성과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전해주고 있다.

복식에 표현된 투명성의 이미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3>

V. 건축과 복식에 표현된 투명성 이미지의 비교 분석

대상을 비교하고 대조해 보는 목적은 유사성과 차이점을 밝히는 데 있으며 비교 대상이 거의 동일하거나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거의 가치를 잃게 된

<표 3> 복식에 표현된 투명성의 이미지

이미지 조형성	순수성	에로티시즘	유희성	개방성
형태	직선, 인체노출 단순한 슬림형	바디컨선스라인 인체노출 곡선형	직선, 곡선, 절충 인체노출	직선 인체노출
색채	흰색	검은색	검은색	검은색
재질	부드러운 소재 망사	신축성 소재 레이스, 부드러운 소재	부드러운 소재 땃땃한 소재	부드러운 소재 땃땃한 소재
빛	투과	투과	투과	투과, 반사
기법	투명, 반투명, 투명+불투명, 불투명			
	동시성			
	인체의노출			
	속옷의겉옷화			
	깨끗함 순수함	성적부위 강조 인체의 노출로 에로틱한 표현	위치전환 과장 왜곡 외설	인체의 개방 자유스러움 표현
디자이너	Valentino Calvin Klein	Versace Thierry Mugler	Pam Hogg Jean Paul Gaultier	Dolce & Gabbana Helmut Newton

다고 하였다. 달리 말해서 비교분석 방법의 최상의 가치는 비교 대상이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차이점을 나타내 다양성을 보일 경우이다.³⁷⁾

본 연구의 건축과 복식에 표현된 투명성의 이미지에서도 많은 공통점이 나타난 반면 차이점도 나타나 다양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건축과 복식에 표현된 투명성의 비교 고찰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표 4>

<표 4> 건축과 복식에 표현된 투명성 이미지의 비교분석

건 축		복 식	
순수성	유리의 순수한 특성을 이용하여 도덕성, 순수성 등 투명성을 은유적으로 표현	순수성	흰색의 투명한 소재를 이용하여 단순한 형태의 슬립 드레스, 또는 웨딩 드레스 등으로 깨끗하고 순수한 이미지 표현
솔직성	투명한 유리를 이용해 건물 내부에서 하는 일에 대한 신뢰성 표현. 고객에 대한 기업의 신뢰성과 솔직성 전달하여 열린 기업으로서의 이미지 표현	에로티시즘	인체 부위를 직접적인 노출이 아닌 투시를 통해 연상심리를 활용한 간접적이고 상징적인 방법으로 에로티시즘 표현
유희성	주변환경의 반영, 내적·외적 공간의 위치 전환 등을 이용하여 유머스러운 형태로 유희성 표현	유희성	착용의 위치전환, 왜곡, 과장, 부조화 등을 이용하여 유희성 표현
개방성	공간의 개방으로 개방적이고 대중적인 이미지 표현	개방성	인체의 개방과 해방으로 구속받지 않는 자유로움 표현

VI. 결 론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순수성은 흰색의 단순한 형태로 깨끗함과 순수함을 표현하고 있다. 투명과 불투명에 의해 여백의 미도 표현하고 있다. 순수하고 솔직한 이미지의 투명성 표현은 새로운 미래에 대한 전망을 표현하는 매개체로서 불안하고 타락한 사회가 아닌 맑고 투명한 특성을 지닌 순수하고 완전한 세계를 상징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투명성의 표현은 현대인들 사이에 공유된 정신적, 심리적 상태를 잘 나타내는 것으로서 새로운 미래를 위한 메시아적 전망을 표현하고 있다.

둘째, 에로티시즘은 투명한 재료에 빛을 통과시켜 인체를 노출함으로써 에로틱함을 전달하고 있

다. 거의 누드와 같이 바디컨서스 라인의 얇은 투명한 의복을 걸치거나 인체의 성적인 호기심을 가지는 부위를 강조하여 에로티시즘을 표현하고 있다. 인체 부위를 부분적으로 노출하는 본 연구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건축과 달리 의복에서는 에로티시즘이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성 본능의 표출만이 아니고 패션의 흐름 속에서 구현되는 아름답고 만족스러운 디자인을 하는데 근본 이유가

있으며 결과적으로 착용하는 사람이나 이것을 보는 관찰자 모두에게 만족감을 부여하여 삶의 윤택함을 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셋째, 유희성은 직선적인 투명한 소재에 빛의 통과로 인체를 인식하는, 또는 안의 의복을 인식하는 동시성을 보여주고 있다. 안과 겉의 위치전환, 과장, 왜곡, 강조 등으로 표현하였다. 이성이나 감성에 강요받지 않는 조화로운 상태로써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정신의 자유로운 해방을 나타내고 있으며 구속에서 독립된 자유로운 행동을 표현하고 있다. 이는 무거운 관념보다 가벼운 감수성으로 살아가고 싶은 현대인들의 감성적 욕구를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개방성은 불투명한 소재 위에 투명한 소재를 걸쳐 의복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고 아무 것도 걸치지 않은 인체 위에 투명한 의복을 입음으로써

구속으로부터의 이탈을 표현하고 있고 인체의 해방과 자유를 표현함으로써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복식 디자인에 있어서 소재의 중요성은 과거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투명 소재는 종래의 폐쇄적이고 무거워 보이는 의복의 개념을 탈피하여 투명한 의복이 빚어내는 개방적인 자유와 가벼운 감수성으로 이동할 것임을 충분히 예견케 한다.

의복에 있어서 새로운 가치, 새로운 아름다움은 점점 충격적인 시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복식에 표현된 투명성은 의복에 있어 새로운 시각 언어, 새로운 형식을 창조하는 것을 도울 것이라 생각하며,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인간의 잠재된 노출 심리가 없어지지 않는 한 투명성에 대한 디자인은 계속되리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 이용구. "Light Construction," 『건축문화』, 1996, 03, p.185.
- Hamilton, J. A. "Dress as a Cultural Subsystem, A Unifying Metatheory for Clothing & Textile." *Clothing & Textile Research Journal* Vol. 6, 1987.
- 김민자. "예술로서의 의상 디자인." 대한가정학회지, 27권 2호, 1986, p.4.
- Roach M. E. & Musa, K. E. *New Perspectives on the History of Western Dress*. New York: Nutirguides Inc., 1985, p.33.
- Tortota, P. "Style A Mirror of the Times." *Journal of Home Economics*, 02, 1975, pp.40-43.
- Wölfflin, H. Translated by M. D. Hottinger, *Principles of Art history*. New York: Dover Publications. Inc., 1929.
- Walker, J. A. 『디자인의 역사』, op. cit., pp.145-151.
- Tansey, C. G. & Kleiner, F. S. *Art through the Ages*. Harcourt Brace, 1996, p.1046.
- 김광숙. "모더니즘에 나타난 시간성과 공간성."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p.2.
- Rowe, C. and Slutzky, R. op. cit., p.166.
- Kepes, G. *Language of Vision*. Chicago: Paul Theobald, 1944, p.77.
- Moholy-Nagy, L. *Vision in Motion*. Chicago: Paul Theobald, 1947, pp.157-210.
- Arenheim, R. 『미술과 시지각』, 김춘일(역). 서울:기린원, 1988, p.156, 321.
- 이은석. "도시의 명료한 은신처로서의 건축." 『Plus』, 1995, 11, p.146.
- Wallschlaeger, C. & Basic-Snyder, C. 『디자인의 개념과 원리』, 원유홍(역). 서울: 안그래픽스, 1998, p.328.
- Munro, T. *Form & Style in the Arts*. London: Western Reserve University, 1970, p.49.
- 宮天英二. 『建築的 空間』, 문석창(역). 서울: 기문당, 1995, pp.26-132.
- Biennale di Firenze, *Art/Fashion*. Distributed Art Publishers, Inc., 1997, p.198.
- Arnason, H. H. *History of Modern Art*. New York: Abrams, 1989, p.317.
- 조성렬. "투명성 공간과 반사 빛의 연출." 『건축문화』, 1990, 06, p.89.
- 신상욱. 『서양복식사』, 서울: 수학사, 1989, p.19.
- Michal, Batterberry, A. *The Mirror of History Fashion*. NY: Geenwitch House, 1982, pp.25-26.
- 남후남. "패션 디자인에 표현된 여성의 인체 노출에 대한 고찰."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p.22.
- Fuchs, E. 『풍속의 역사 II -르네상스-』, 이기웅·박종만(역). 서울: 까치, 1986, p.2, 32.
- 백영자·유효순. 『서양복식문화』, 서울: 경춘사, 1998, p.253.
- Wilcox, R. T. *The Mode in Costume*.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58, p.224.
- Laver, J. *Costume and Fashion A Concise History*.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82, pp.150-152.
- Penn, I. & Vreeland, D. *Inventive Paris Clothes 1909-1939*. New York: Viking Press, 1977.
- Sant Laurent, Yves. *The-Metropolitan Museum of Art*. New York: Clarkson N. Potter. Inc, 1983, p.74.
- Black, J. & Garland, M. op. cit., p.363.
- 조규화. 『복식미학』, 서울: 수학사, 1982, p.273.
- 박명희. "이세이 미야케의 의상에 나타난 형태미와 상징성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권 1호, 1990, p.4.
- 민미홍. "에로티시즘 표현에 관한 의상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p.35.
- 학원사 편집부. 『철학 대사전』, 서울: 학원사, 1985, p.855.
- 하지수. "현대패션에 표현된 유희성." 복식, 제22호, 1994, p.75.
- 학원사 편집부. 『철학 대사전』, op. cit., p.934.
- Grenier, J. 『자유에 관하여』, 장희숙(역). 서울: 청하, 1999, p.66.
- Walker, J. A. 『디자인의 역사』, op. cit., p.145.